

“싱글들 사랑 이야기 제 연애세포 깨웠죠”

화려한 싱글 삶 다룬 로맨틱 코미디
허당끼 넘치는 출판사 편집장 역 맡아
“실제로도 싱글...자유로운 현재 삶 만족”

영화 '싱글 인 서울' 임수정



“사랑스럽고 따뜻한 영화죠. 제가 영화를 보고 ‘설렘 설렘’ 한 것도 정말 오랜만이에요. 뭐랄까, 연애 세포가 다시 살아났다는 느낌이랄까요.”

최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임수정(사진)은 영화 ‘싱글 인 서울’을 보고 난 느낌이 어땠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며 웃었다.

박범수 감독의 신작 ‘싱글 인 서울’은 이 시대 한국에서 살아가는 ‘싱글’의 삶과 연애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로, 이동욱과 임수정이 주연했다. 오는 29일 개봉 예정이다.

이 영화는 혼자 사는 삶을 즐기는 화려한 싱글 영화(이동욱 분)가 자그마한 출판사 편집장 현진(임수정)으로부터 ‘싱글 라이프 에세이’에 기고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현진도 싱글이지만, 영화와는 달리 내심 연애를 꿈꾼다. 그러나 연애의 ‘축’이 너무 없다 보니 남자의 마음을 제대로 못 읽어 실수를 연발한다.

임수정은 “현진은 자기 일은 열심히 잘하고 프로페셔널하지만, 개인적인 면에는 신경을 못 쓰는 캐릭터”라며 “(‘허당’ 끼가 있는 캐릭터라 연기할 때) 좀 더 자유로움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또 “현진은 귀엽게도 ‘그 사람이 날 좋아해’라고

혼자 착각한다”며 “저는 그와는 달리 ‘나 지금 당신이 궁금해’ 이런 느낌으로 시그널을 보내는 편”이라며 웃었다.

임수정은 실제로도 싱글이다. 그는 “현진은 ‘함께가 좋아’라는 가치관을 가졌지만, 저는 ‘함께도 좋지만 혼자도 즐거워’라는 생각으로 산다. 싱글 라이프에 만족한다”고 털어놨다.

싱글의 장점으로 ‘자유’를 꼽은 그는 “(싱글이 아닌) 오롯이 제 삶만 생각하면 되다 보니 자유로운 면이 있다”며 “가끔은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임수정은 로맨스물의 주연을 많이 맡아 ‘로맨스퀸’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연한 굵직한 로맨스물만 해도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 (2004),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2019), 영화 ‘김종욱 찾기’ (2010), ‘내 아내의 모든 것’ (2012) 등 한두 개가 아니다.

상대 배우도 정우성, 소지섭, 강동원, 현빈, 공유, 황정민, 류승룡 등 톱스타를 아우른다.

임수정은 “로맨스 장르에 잘 맞는 매력 넘치는 배우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로맨스 퀸 같은) 그런 타이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제가 운이 좋은

것”이라며 자기를 낮췄다.

그는 ‘싱글 인 서울’에서 호흡을 맞춘 이동욱에 대해서도 “(이동욱이) 드라마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에 특별 출연했을 때 잠깐 호흡을 맞춰 봤는데 연기를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번에도 보니 연기 스펙트럼이 넓고 정말 유연하게 잘했다”며 칭찬했다.

임수정은 현재 소속사나 매니저를 두고 있지 않다. 이날도 택시를 타고 인터뷰 장소에 나왔다.

그는 “무슨 의도를 가지고 혼자 일하려고 한 건 아니고, 올해는 일보다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려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다”고 털어놨다.

임수정은 과거 인터뷰 등에서 연기를 넘어 제작에 뛰어들어 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작은 규모의 영화라도 작품성이 있는 걸 스크립트 단계부터 기획에 참여해 협업도 좋고 제작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어떤 영화를 만들고 싶냐는 질문에 “일단 여성 서사에 관심이 많다. 30대, 40대, 50대도 사랑하고 싶어 하고, 로맨스가 있다”며 여성을 중심으로 폭넓은 연령대의 로맨스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스무살 뽀로로 온 가족 애니로 성장할 것”

우지희 대표 “대학 축제서 뽀로로 떴창 감동”...신작 다음달 13일 개봉

“처음엔 몇 년 지나면 사업이 궤도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뽀로로가 사랑받는 과정을 보니 캐릭터 애니메이션 사업은 시간이 지나야 더 가치를 발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20주년을 맞은 애니메이션 ‘뽀롱뽀롱 뽀로로’를 공동 제작한 오콘의 우지희(사진) 대표이사를 지난 15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 있는 이 회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우 대표는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빠르다”며 이같이 돌아봤다.

뽀로로는 2003년 11월 27일 EBS에 첫선을 보인 이후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지금도 거의 매년 극장판 애니메이션이 개봉하고 있다. 오콘이 제작한 신작 ‘슈퍼스타 대모험’은 다음 달 13일 개봉을 앞뒀다.

이처럼 많은 사랑을 받은 뽀로로의 캐릭터 디자인을 진두지휘한 인물이 바로 우 대표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뽀로로’를 그린 사람’으로 알려지는 것이 난처하다면서 제작 과정을 설명했다.

우 대표는 “뽀로로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 적어도 20명 넘는 디자이너가 참여했다”며 “여러 디자이너가 뽀로로의 모습을 수없이 고치고 또 고쳐가면서 그랬다”고 했다.

뽀로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비행 조종사가 착용한 헬멧과 고글을 쓰고 다니는 펭귄이란 설정이다. 종전까지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독창적인 모습으로 아이들의 눈을 사로잡았다.

우 대표는 “캐릭터의 특징을 한눈에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펭귄은 새인데도 날지 못하니까 뽀로로는 ‘날고 싶은 펭귄’이런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가 얼마나 오랜 시간 사랑받았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영상이 올해 4월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다. 900만 조회수를 넘긴 이른바 ‘대학 축제 뽀로로 떴창’ 동영상이다.

충남대 축제 현장을 담은 이 영상에서 무대에 오른 한 남학생은 ‘뽀롱뽀롱 뽀로로’를 부르겠다고 배정음을 틀어달라고 말한다. 곧이어 객석의 대학생들이 입을 모아 ‘노는 게 제일 좋아’로 시작하는



노래를 부른다. 뽀로로 애니메이션을 보던 어린이들이 자라서 대학생이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다.

이 영상을 봤는지 묻자 우 대표는 “너무 기분 좋았다”며 웃음 지었다.

“언젠가 뽀로로를 좋아하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했죠. 그게 어떤 모습일지 몰랐는데, ‘떴창’ 하는 모습을 접하고 많이 감동했어요. 고맙고요.”

지난 20년간 한국 대표 애니메이션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아동 인구 감소로 주요 시청층이 급감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우 대표는 “어린이뿐 아니라 할머니까지 같이 볼 수 있도록 해야 시청층을 넓히고 더 발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 선보일 뽀로로 극장판은 더 많은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선 이야기도 깊어져야 하고 표현 방법도 많이 연구해야 한다”며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커진 예산을 감당하려면 해외 판로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애태우던 ‘연인’ 극적 재회 해피엔딩

MBC 드라마 막방 시청률 12.9%

남궁민과 안은진이 주연한 드라마 ‘연인(사진)’이 마지막회에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며 유종의 미를 거뒀다.

19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40분 MBC가 방송한 ‘연인’의 시청률은 12.9%로 조사됐다. 이는 직전 회차가 기록한 종전의 자체 최고 시청률 12.4%보다 높다.

마지막 방송은 역도로 몰린 이장현(남궁민)이 관군에게 쫓겨 유길채(안은진)와 헤어졌다가 극적으로 재회하는 과정을 담았다.

이장현은 관아에 붙잡혔던 포로들이 탈출하기를 기다려 함께 능군리로 도망치려 하는데, 도착한 포로들에게서 양천(최무성)이 혼자 관군을 유인하려다 붙잡혔다는 소식을 접한다.

이에 이장현은 길채와 포로들을 먼저 능군리에 보내고 자신은 뒤쫓는 관군에 맞선다. 이장현을 뒤쫓는 일을 지휘한 남연준(이학주)은 이장현과 역도들을 모두 죽였다고 조정에 보고한다.

얼마 후 남연준은 사실 이장현이 죽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털어놓고, 이에 유길채는 이장현의 마지막 행적을 쫓는다. 기억을 잃었던 이장현이 유길채를 알아보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다. /연합뉴스



유튜브로 옮겨 간 음주 예능

조현아·이영지 등 ‘취중진담 토크’ 높은 조회수

유튜브 음주 예능 프로그램들이 연예인들의 감춰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취중진담 토크쇼’를 표방하는 프로그램들은 호스트가 매회 다른 게스트를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는 포맷이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유튜브 음주 예능인 조현아의 ‘목요일 밤’은 매주 목요일 업로드 되는 콘텐츠. 일반 가정집 같은 촬영 장소는 피아노 두 대와 술상을 차릴 하얀 원탁을 놓으면 가득 찰 정도로 협소하다. 마치 친구 집에 놀러 온 듯한 편안한 분위기를 풍긴다.

‘목요일 밤’은 특히 가수 조현아가 평소 절친 사인인 수지를 섭외한 회차가 큰 화제를 모았다. 둘은 평소 즐겨 마시는 대로 레몬 넣은 소주 한 잔으로 술자리를 시작해 복어 사부사부를 끓여 먹으며

옛 추억들을 떠올린다.

곧 시종 3으로 돌아오는 이영지의 ‘차린 건 뉘뽀도 없지만’도 꾸준한 인기를 끄는 콘텐츠다.

이영지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로 게스트들을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글로벌 스타 BTS 진부터 블랙핑크 지수, 에스파 카리나, 르세라핌 채원, 잇지 채령, 팍 스타 크리스토퍼, 축구선수 조규성 등이 출연했다. 팬덤이 두터운 아이돌 그룹 멤버나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스타가 출연하는 만큼 영상들은 큰 번수 없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진이 출연한 영상은 조회수 2100만 회를, 지수는 1900만 회다. 카리나, 안유진, 채령은 각각 1500만, 1400만, 1800만 회를 찍었다. /연합뉴스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마트에서 쿠키 바로 바로 확인까지!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유동지점 062)512-1984~5	유덕지점 062)373-3235~6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치평지점 062)381-8212~3	동림지점 062)513-8521~3	동운지점 062)528-2640~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쌍촌지점 062)381-6551~2	운암지점 062)527-3295~6	배틀지점 062)381-1971~2	양동센터지점 062)361-4472~4
외정지점 062)372-0421~3	운천지점 062)371-2772~3	상무동지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